



새로운 조경수 90

초롱꽃철쭉(등대꽃, 단풍철쭉)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1. 종류와 생육특성

초롱꽃철쭉은 진달래과(*Ericaceae*) 초롱꽃철쭉속(*Enkianthe*)에 속하는 나무로 동아시아와 히말라야 등지에 10여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생종(自生種)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지리산(智異山)에 초롱꽃철쭉(흰초롱꽃철쭉)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우리나라에도 자생종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롱꽃철쭉 외에 외국에서 도입된

붉은초롱꽃철쭉, 분홍초롱꽃철쭉 등 2종이 조경수로 재배되고 있다.

초롱꽃철쭉이 다른 철쭉보다 특이한 점은 꽃의 모양이 초롱같고 가을 단풍이 아주 진한 주홍색으로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롱꽃철쭉류는 내한력(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염력(耐朴力)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하며 특히 생육적지는 양지, 음지



▲ 붉은 초롱꽃철쭉의 꽃과화서



초롱꽃철쭉(등대꽃, 단풍철쭉)

〈표 1〉 초롱꽃철쭉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초 례 꽃 철 쭉	<i>Enkianthus perulatus</i> (MIQ.) SHNEIDER.	ドウダツジ	White Enkianthus (Japanese Bellflower)
붉은 초 례 꽃 철 쭉	<i>Enkianthus cernuus</i> MAKINO <i>f. rubens</i> OHWI	ベニドウダツジ	Red Enkianthus
분 홍 초 례 꽃 철 쭉	<i>Enkianthus campanulatus</i> NICHOLS.	サラサドウダツジ	Pink Enkianthus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 종 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 포 지 역	생 육 입 지
초 례 꽃 철 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2~5m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 • 줄기의 마디에 가지가 윤생(輪生)하여 층을 형성. • 수피는 황갈색이고, 새가지는 적갈색이며 광택이 있음. • 잎은 호생하고 도난형이며, 길이 2~4cm, 넓이 1~2cm, 끝은 뾰족하고 기부는 쐐기모양임. • 잎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가 있고 잎자루의 길이는 0.6~1.2cm임. • 잎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털이 없으며 뒷면 중추엽맥의 아래 부분에 갈색털이 밀생함. • 가을 단풍이 짙은 주홍색으로 대단히 아름다움(일반 철쭉보다 단풍이 늦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의 초롱모양의 꽃이 4~5월에 잎과 같이 필. • 화서는 산형(傘形)화서로 한 개의 화서에 3~10개의 꽃이 아래로 향하여 달림. • 화경(花梗)의 길이는 1~1.5cm임. • 화통(花筒)의 길이가 0.8cm 정도고, 화두(花頭)가 앞게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10개임. • 아래로 향하고 있는 화경이 열매를 맺어 과경(果梗)으로 변하면 점점 위로 향하여 열매가 직립하게 됨. • 열매는 길이가 0.8cm 정도 되는 장타원록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수분이 적당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비옥한 양토면 양지, 음지 구별없이 잘 자란다. ※ 주로 사문암(蛇紋岩)지역에 자생하고 있다.
붉은 초 례 꽃 철 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이 가지 끝에 윤상(輪狀)으로 모여 피나 초롱꽃철쭉은 호생함. • 잎자루가 0.4~0.6cm로 초롱꽃철쭉의 0.6~1.2cm보다 짧다. • 기타 특징은 초롱꽃철쭉과 비슷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빛깔이 주홍색인 초롱꽃철쭉은 백색임. • 화서가 총상(總狀)화서인데 초롱꽃철쭉은 산형화서임. • 개화시기가 5~6월로 초롱꽃철쭉의 4~5월 보다는 늦은편임. • 삭과의 길이는 0.5cm로 초롱꽃철쭉의 0.8cm보다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화산회토에서 자란다.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분홍초롱꽃철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은 붉은 초롱꽃철쭉과 같이 가지 끝에 윤상(輪狀)으로 모여서 착생함. • 잎의 길이가 3~6cm로 초롱 및 붉은 초롱꽃철쭉의 2~4cm보다 큼. • 잎자루의 길이는 0.7~1.5cm로 초롱꽃철쭉의 0.6~1.2cm와 비슷하나 붉은 초롱꽃철쭉의 0.4~0.6cm보다 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경(果梗)이 낚시 모양으로 꼬부라져 상향(上向)하나 초롱꽃철쭉의 과경은 꼬부라지지 않고 전체가 상향함. • 꽃빛같은 기부쪽은 담황색이고, 선단쪽은 담홍색임. • 화서는 총상화서로 붉은초롱꽃철쭉과 같음. • 개화시기는 5~6월로 초롱꽃철쭉보다 늦은편임. • 과경의 길이는 1.5~2.5cm로 초롱 및 붉은초롱꽃철쭉보다 긴 편임. • 과경의 길이는 1.5~2.5cm로 초롱 및 붉은 초롱꽃철쭉보다 긴 편임. • 과경이 붉은 초롱꽃철쭉처럼 낚시 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져 상향하고 열매가 직립함. • 삭과의 크기는 길이가 0.5~0.7cm고 난상타원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약산성의 토양에서 잘 자란다.

구별없이 토양수분이 적당하고 부식질(腐植質)이 풍부한 비옥한 양토에서 잘 자란다.

2. 조경수로서 활용가치

일반적인 철쭉류의 꽃은 리변화관(離瓣花冠)이지만 초롱꽃철쭉류의 꽃은 종형(鐘形), 호형(壺形)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꽃모양만 보아서는 철쭉류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일반철쭉에

서 볼 수 있는 화려함은 적어도 아주 작은 초롱꽃 모양의 꽃이 가지 아래로 드리워 조롱조롱 매달려 피어있는 모습은 정숙한 여인상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만끽하게하고 가을에 짙은 주홍색의 단풍은 꽃 이상으로 아름답다. 이와 같은 특성 외에도 초롱꽃철쭉은 직립성이고 가지가 조밀하게 착생하며 맹아력이 왕성하여 떨기를 잘 형성하는 한편 전지, 전정으로 수형을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래전부

(주)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한국수목도감에는 초롱꽃철쭉을 단풍철쭉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모든 철쭉류가 가을이 되면 모두 단풍이 들기 때문에 단풍철쭉이라고 함은 수종특성을 살리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속명 *Enkianthus*의 *Enkios*는 임신한 배처럼 볼록하다는 뜻과 *Anthos*는 꽃이란 라틴어의 합성어로 배가 볼록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초롱꽃철쭉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한 식물도감(이창복 저)에서는 등대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명의 직역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대란 바다의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등불의 등이란 뜻이므로 초롱꽃철쭉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초롱꽃철쭉(등대꽃, 단풍철쭉)



▲ 초롱꽃철쭉의 개화전경

▲ 꽃과 화서



▲ 분홍 초롱꽃철쭉의 꽃과화서

터 정원수, 생울타리, 지피식생(地被植生), 분재소재(盆栽素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롱꽃철쭉(흰초롱꽃철쭉)외에는 자생종이 없기 때문에 조경수로서의 보급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원녹지 및 가로 중앙분리대의 공간 피복, 생울타리 조성, 각종 정원조성, 분재소재 등 조경수로서의 활용성이 기대되는 수종이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초롱꽃철쭉의 번식은 과종과 삽목으로 번식하며 과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법은 10월 하순경에 열매가 익어 열매 끝 부분이 벌어지기 전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열매가 말라서 끝 부분이 벌어지면 종자를 떨어내서 병 같은 용기에 넣어서 밀봉한 다음 과종시까지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다(보관상태가 좋으면 3~4년간 보관하여 두어도 발아가 가능하다).

과종상의 상토는 모래와 배양토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어 온실의 프레임이나 비닐하우스 내 상면(床面)에 5~10cm 두께로 펴고, 그 위에 말린 이끼 또는 피토모스를 1cm정도 두께로 덮은 다음 m^2 당 6cc 또는 2g정도의 종자를 20배의 모





▲ 분홍 초롱꽃철쭉열매의 착과형상



▲ 분홍 초롱꽃철쭉의 단풍



▲ 분홍 초롱꽃철쭉의 새순

래와 잘 섞어서 상면에 균일하게 뿌린 다음 분무기로 충분히 간수를 하여 준다. 상면이 마르지 않게 수분관리를 잘하여 주면 파종 후 20~30일이면 발아하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내가 아니면 수분관리가 어려워 발아를 기대할 수 없다.

삼목묘양성은 7~8월의 장마철에 맹아지(萌芽

枝) 또는 도장지(徒長枝)를 채취하여 10~15cm 길이로 절단한 다음, 아래쪽 절단면은 다시 엷비슷하게 단칼에 잘라주고 상단부에는 3~5장의 잎만 남기고 아래 부분의 잎은 모두 제거하여 삼수를 조절하고 삼목의 길이는 삼수길이의 2/3정도가 묻히도록 삽입한다. m²당 삼목본수는 200~300본 정도로 하고, 삼목 후에 해가림을 설치하여 주고 수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